

濟州島方言 研究의 現況과 課題

玄 平 孝*

I

1.1. 우리나라 方言에 대한 과학적인 調査研究은 1911년에 비롯되었고, 이 1911년의 調査地는 다름 아닌 濟州島이었다. 이 제주도를 첫 조사의 對象地로 잡았던 것은 제주도라는 이 섬이 言語地理學 상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방언은 어느 지역방언보다도 가장 먼저 조사되기 시작한 방언이고, 또 그 연구도 어느 정도는 되어진 방언 중의 하나로 오늘날 인식되고 있다.

1.2. 1911년부터 1986년까지 76년 사이에 제주도방언(이한 ‘이 방언’이라 칭함)에 대하여 연구 발표된 것을 都合해 보면 172편이나 된다(별표 참조). 이 172편이나 되는 논저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제주도 방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었나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II

2.1. 이 172편 중 이 방언의 研究史의인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論著에 대해서만 그 발표된 연대순에 따라 ‘音韻・語彙・形態 및 統辭’ 등 분야별로 나누면서 극히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前 제주대 총장

2.2. 1940년대까지 이 방언 음韻에 대한 연구는 일본 학자(小倉進平·河野六郎)의 독무대이었다. 그들의 한국방언 연구의 목적이 言語史學的인 데에 있었던 만큼 이 방언에서의 음韻 분야의 主題들도 個體的이요 音韻史的인 것이 그 대부분이었다. ‘·’ 母音, 二重母音, 前舌母音化, 語中에서의 子音 ‘ㄱ·ㄴ·ㄷ’, 頭音法則, 氣音化, 口蓋音化 등이었는데, 이들 主題는 그 體系 속에서만 또는 다른 項과 關連시켜서가 아니라 孤立的 個體史的으로 고찰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연구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방언에서 ‘·’ 母音이 제 2 音節에서는 이미 ‘ㅡ’ 母音으로 대부분 변해졌지만 제 1 音節에서는 16·7세기 中央語에서와 같이 歷然히 발음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援用해서 國語音韻史上的 ‘·’ 音의 변화 과정에 대한 確證적인 認知를 함과 동시에 제주도방언의 국어음운사상의 위치를 17세기 전후로 추정했던 것이다(李崇寧 1954, 1957).

그후 이 방언에서의 共通語系 語彙에 나타나는 音韻 양상에 대한 記述한 바 있고(康允浩 1960), 또 오늘날까지도 이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殘存해 있는 ‘·’ 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音價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또 이 방언의 ‘ㅈ[e]’ 母音에 대해서도 語義 구분의 기능적 단위가 되어서 獨立 音素로 존재함을 밝히는 한편 單母音 音素에 대한 目錄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玄平孝 1963, 1964a). 그런데 ‘ㅈ[e]’ 母音이 獨立 音素로 言衆들의 言語表現 상에서 발음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年老層 이상의 언어에 있어서이고, 年少層의 언어에서는 ‘ㅈ[e]’ 母音이 ‘ㄱ[e]’ 母音에 統合되어 가고 있음도 구명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방언에는 9개 母音의 三序三系四角組織體系와 7개 母音의 三序三系三角組織體系, 이 두 體系가 並行해서 使用해지고 있음도 밝혀 내었다(金完鎭 1963, 玄平孝 1964b, 1970b).

子音에 있어서 口蓋音化, 頭音法則, 氣音化 현상 등은 일찍부터 言及되어 왔었는데, 近者에 이르면서 ‘ㅎ’ 插腰로 말미암은 有氣音化 현상에 대한 고찰이 있었고(玄容駿 1957, 宋相助 1982), 또 硬音化, 中和現象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論考가 있었다(金光雄 1984, 1986). 그런데 子音 音素에 대한 目錄 확인 내지 體系化에 대해서는 40년대 전에는 물론 그 후에 와서도 아직

까지 論해진 바가 없다.

2.3. 「語彙」분야의 그 논저 발표의 편수는 音韻 분야와 거의 비등하지만 그 成果에 있어선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 방언의 語彙論 분야는 未開拓 상태에 있다고 하여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작된 이래 語彙 분야에서의 고찰은 특이하다고 할 말, 아직도 殘存해서 사용되고 있는 古語와 비슷한 말, 또는 滿蒙語에서 傳來되었다고 하는 말, 즉 馬名, 物名 등을 선별적으로 고찰함이고작이었다 할 것이다(小倉進平 1924, 1931, 方鍾鉉 1937, 石宙明 1947). 近者까지도 이 특이하다고 할 말들을 택해서 그 말의 생성·발달해 온 과정 내지는 의의를 밝히는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어 나가고 있다(金洪植 1975, 1980, 李基文 1985). 또 한두 語彙를 중심으로 하여 語彙史의인 고찰과 아울러 語源의인 탐구를 시도한 論考들도 있었다(玄平孝 1968, 1971).

한편 基礎語彙 200 項目을 놓고 中部·南部·濟州島 方言 相互 및 이들과 中期語彙에 대해서 기초어휘 통계학적 고찰을 한 바가 있었고(梅田博之 1963), 또 基礎語彙 200項目에 대한 15세기 文獻語와 방언 語彙와의 비교를 통하여 방언의 分裂年代를 추정하고 分裂 후에 있어서의 방언의 多變性과 古語維持性을 밝히려고 한 시도도 있었다(姜根保 1972).

또 이 방언에서의 音節 構成型의 특징을 들고 그 音節數에 따라 單語가 形成되어진 語彙들을 분류하면서 적잖이 기술해 낸 작업도 있었다(金公七 1977). 그리고 또 이 방언 象徵語에 대해서 形態상으로 볼 때 象徵語의 主流를 이루는 語形은 多音節 疊形이고, 內容상에 있어선 擬聲語보다 擬態語에 특이한 것이 많음을 밝히면서 象徵語의 機能까지도 言及을 한 고찰도 있었다(李英姬 1982).

2.4. 「形態 및 統辭」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논저 발표의 편수가 가장 많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분야의 연구발표는 괄목할 만하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 사이의 논저가 41편이고, 1911년부터 1974년까지 1964년 사이의 논저는 겨우 13편에 不過하다.

1950년대 전반까지에 있어서 「形態 및 統辭」분야의 연구는 어떤 특이한 語尾들에 대해서 또는 古語 形態와 상관 있는 語形들을 택해서 고찰함이 일반적이었다. 할 수 있다. 用言 語尾를 다룸에 있어서도 극히 일부의 특이한 語尾들을 孤立的으로 고찰하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 방언 語尾活用に 대한 개괄적인 고찰이 있었고(金榮敦 1956), 이 후부터 形態 분야는 매우 폭넓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경향의 첫 논문이 「濟州島方言의 形態論의 研究」(李崇寧 1957)이다. 이 논문은 제주방언의 造語, 格語尾, 活用語尾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당시 제주도방언 연구 상에서는 두말할 것 없고, 국어방언학상에서도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活用語尾만 해도 특이한 語尾에 대해서만 論한 것이 아니라 그들 語尾의 文法範疇에 따라 구분해지는 時制, 敬語法, 叙法 등 活用語尾들을 폭 넓게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후 「제주방언연구」(朴用厚 1960)에서는 이 방언의 주로 語彙 資料를 제공하는 외에 用言의 活用に 있어서는 動詞, 形容詞, 指定詞 별로, 그리고 格助詞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연하게 분류하여 내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방언의 定動詞語尾(終結語尾 및 補助語幹)의 活用に 대해서 그 의의 기능에 따라 形態들을 分析한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玄平孝 1974)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종래, ‘時制’라고 부르던 語尾形態들의 일부를 ‘動作相’이라 고쳐 부르고 ‘動作相’이라는 文法範疇를 새로 設定하였다. 또 叙法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終結語尾(語末語尾)만을 叙法 형태로 다루어 왔던 것을 先語末語尾의 일부와 語末語尾의 것들을 각각 叙法 형태로 다루었다. 尊待法에 있어서도 相對者를 존대하는 形態가 三項的 對立體系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또 이 방언의 특이한 語尾 형태로 表現되는 疑問法에 대한 고찰이 있었고, 또 動作相의 일부 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洪宗林 1975, 1976, 李男德 1982).

그 후 連結語尾에 대한 연구로서 「제주도방언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成洛秀 1983)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連結語尾의 형태·통사론적 구조와 의

미를 밝히기 위하여 연결어미들을 그 통사론적 특성에 따라서 크게 對等接續法과 包有接續法으로 나누고 下位의 각 語尾들을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되 그 기본형태와 변이형태들을 구분하면서 어미들의 선택 제약까지를 고찰했다.

한편 이 방언의 曲用語尾들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에서 ‘-드레, -신디’ 등이 각각 두 형태로 분적되는데 이들은 원래 語彙範疇에서 文法形態化한 것이라 하고 格語尾로 다루어왔다. 그런데 ‘이런, 신디, 마라, 아올라, 안티, 아피’ 등은 格語尾가 아니라 하나의 品詞 後置詞로 設定함이 마땅하다고 하며 考察한 바가 있었다(姜榮峰 1981). 그 후 格語尾에 대한 새로운 考察로서 「제주방언의 명사류접미사에 관한 연구」(康貞姬 1984)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下位言語로서의 제주방언의 표현형식 중 共通語와 同一性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명사류의 접미사에 관해서 논한다 하고, 표면구조에 실현되는 굴절접미사(주격·대격·처격·기격)와 문확장접미사 그리고 인용접미사들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형태론적 특성을 살핀 다음 이들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내용을 究明하기 위하여, 한국어라는 공통어가 지닌 言語規則을 이 方言의 言語現象에 適用하고, 나아가 共通語의 言語體系를 生成시킬 수 있는 規則의 抽出을 시도한 고찰이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補文化(引用文) 현상에 대해서도 근자에 활발히 논해졌다. 補文化현상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言及한 바는 있었지만 「濟州方言의 動詞句 補文 研究」(金智弘 1982)와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고영진 1984), 이 두 논문에서가 가장 폭 넓게 다루었다. 補文化 현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補文子 형태의 확인인데, 그 형태를 ‘-인/-잉’으로 확인하고자서는 이 두 형태가 상위동사의 時間性에 따라 달리 쓰이는 것으로 하여 의미·기능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수의적 변이형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李崇寧·朴用厚·康貞姬·金智弘·成洛秀) 그런데 直接引用 補文子의 基本形態를 ‘-엔’, 間接引用 補文子의 基本形態를 ‘-엔’으로 確認한 바도 있었다(고영진 1984).

〈별표〉 분야별·연도별 논문발표 현황

1986년 현재

연도	분야								일반	자료	계
	육군	해군	어위	계통	지명	방위	사회	방안			
1913~1944	—	—	3	—	—	2	—	4	2	11	
1947	—	—	2	—	—	—	—	—	1	3	
1950	—	—	1	—	—	—	—	—	—	1	
1954	1	—	—	—	—	—	—	—	—	1	
1956	—	2	—	—	1	—	—	—	—	3	
1957	2	1	1	—	—	—	—	1	—	5	
1959	1	—	—	—	—	—	—	—	—	1	
1960	2	—	1	—	—	—	—	1	2	6	
1962	—	—	2	—	—	—	—	1	1	4	
1963	2	—	1	—	—	—	—	2	—	5	
1964	2	—	—	—	1	—	—	1	—	4	
1965	1	1	1	—	—	—	—	—	—	3	
1966	—	1	1	—	—	—	—	1	—	3	
1967	—	—	1	2	—	—	—	2	—	5	
1968	1	2	1	1	1	—	—	3	—	9	
1969	—	—	1	2	—	—	2	—	—	5	
1970	1	1	—	—	—	—	—	—	—	2	
1971	2	—	1	1	—	—	—	—	—	4	
1972	1	1	1	—	2	—	—	—	—	5	
1973	—	2	—	—	—	—	—	—	—	2	
1974	—	2	—	—	—	—	—	2	1	5	
1975	—	5	2	—	1	—	—	—	—	8	
1976	2	2	—	—	—	—	—	—	—	4	
1977	2	5	—	—	—	—	—	—	—	7	
1978	—	3	—	—	1	—	—	—	1	5	
1979	1	—	1	—	—	—	—	1	—	3	
1980	2	4	1	—	—	—	—	1	—	8	
1981	—	3	—	—	1	—	—	—	—	4	
1982	2	7	3	—	—	—	—	2	—	14	
1983	1	6	—	—	1	—	—	—	—	8	
1984	2	4	1	—	—	—	—	—	1	8	
1985	2	2	2	—	1	—	—	1	—	8	
1986	2	—	3	—	2	—	—	1	—	8	
계	32	54	31	6	12	2	2	24	9	172	

III

3.1. 1976년 간의 연구 논저가 172편이다. 적잖은 연구업적이다. 하나 어느 한 분야도 그 言語事實의 특징들이 밝혀지고 體系化되었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 형태·통사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했지만 이 분야의 山積해 있는 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이제야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여 과언이 아니겠다.

3.2. 오늘날 표준어 교육의 극대화와 매스컴 및 교통의 발달은 絕海孤島 이전 山間僻地이건 할 것 없이 그 言語障壁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방언에는 改新波의 言語가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 오고 있다. 오늘날 이 방언의 양상은 극심한 混態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年老層 社會에서 生成해지는 言語事象과 年少層 社會에서 또는 壯年層 이하의 公的生活에서 쓰여지는 言語事象 이 두 階層의 言語가 마구 뒤섞여 쓰여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두 階層의 言語는 확연히 區分해지기도 어렵겠지만 언제까지나 共存해 있을 것도 아니다. 이윽고 年老層의 言語는 埋沒되고 死滅해 버리게 마련이다.

3.3. 이 두 階層의 言語體系에 대한 總體的이고도 分揀的인 조사·정리가 요긴한 課業이다. 하나 보다 時急을 요해야 할 課業은 年老層의 言語體系이다. 이 年老層의 言語體系는 마구 破碎당하고 埋沒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近者 生成理論的 作業에서는 한국어라는 共通의 普遍的 規則을 앞서 두고 방언의 言語事實을 記述하는 경향을 보지만 방언에서의 普遍性도 追求해야지만 特異性·多樣性도 마찬가지로, 아니 보다 더 時急히 그리고 重點的으로 追求해야 할 課題라고 본다.

3.4. 在來에 우리의 방언조사는 몇 가지 缺陷을 지니고 있었다. 그 조사가 낱말 중심이어서 文法 분야에 대한 조사는 아주 소홀했고, 조사 자료의 正確性이 缺如되어 있었고, 語形上의 差異에만 置重한 나머지 意味上의 差異·變異에 대한 記述이 거의 없었다는 點 등이다.

이 방언에 대한 正確·精密한 再調査·整理 작업을 펴 나갈 일이 時急하

고 喫緊하다. 再調査・整理해 놓는 일이 곧 이 지역 方言에 대한 研究의 일환이며 그것은 나아가 國語學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먼 훗날 國語學史 上的의 貴重한 文獻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